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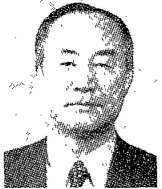
東大新聞

1998년(별기 2542년) 3월 9일(월요일) 제 1242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경만 정택섭 / 부주관 고창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 ~ 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0561)770-2057

7자이어
신문

배움은 마땅히 먼저 깨달음을 구해야 하니 잘 관찰
하여서 읽고 그 뜻을 분별하라. 진리를 배웠으면 응당
남을 가르칠 것이며 슬기로워서 다시는 미혹되지 않
는다. 법구경 · 교학품 43절

본교 송석구 총장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장 피선



본교 송석구(철학) 총장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송석구 총장은 제 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조희영 경영학부 교수 교수불자연합회장 선임



조희영(경영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한국 불교 조계종 총무원 교회사무국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98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교무위원회 인사 단행

본교는 교무위원회 인사를 지난 3월 2일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무위원회 인사

- △대학원장(유일기간: 98. 11. 30)=김인홍(사과대 정치외교학과)교수
- △교육대학원장=오국근(문과대 영어영문학과)교수
- △산림기술환경대학원장=김상규(공과대 건축토목공학부)교수
- △지역개발대학원장=김희오(법정대 법정학부)교수
- △경주 정각원장=최창식(불교문화대 불교학부)부교수
- △불교문화대학장=이행구(불교문화대 불교학부)교수
- △법정대학장=김선정(법정대 법학과)교수
- △상경대학장=최상영(상경대 경상학부)교수
- △의과대학장=서정욱(의과대의학과)교수
- △경주 이부대학장=김영재(상경대 경상학부)교수
- △경주 학생처장=이한구(인문대 역사철학부)부교수
- △경주 사회문화교육원장=김용택(인문대 사회복지학과)부교수 이상 3월 2일자

'98학년도 학생회 건설 '이번엔 기필코'

지난해 문제점 수정·보완 ... 중선위 "실수없게 최선 다할 터" 유권해석 명확·총학 총여 선거 분리 실시 등 진행 과정 개선

제30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주용·철4 이하 중선위)는 지난 97년 11월 실시되었던 98학년도 선거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당선자측의 사퇴로 총학과 총여의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9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98학년도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지난해 학생회의 위상 하락과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어느해보다 힘든 과정을 거쳤던 본교의 총학·총여선거는 과정에 있어 투표시간 연장, 휴학생과 재학생의 인적여부에서 비롯된 무리한 유권해석, 중선위의

진행이슈이라는 문제점을 남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월치 못한 선거가 되었다.

이번 과정상의 이유로 당시 총학과 총여의 당선자들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이에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 5일 중선위를 구성,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번 선거는 총학과 총여 이외에도 지난해 선거를 치르지 못한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와 이과대, 법과대, 경성대, 공과대, 예술대 등의 5개 단과대 학생회장선거, 이과대, 사범대의 대의원장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각 단과대 학생회의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총학·총여가 오는 9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총대는 9일부터 오는 12일 오후 4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어 17일에 후보자 공보가 이어진다.

투표는 △총학-4월 1, 2, 3일 △총여-3월 30, 31일 △총대-3월 26, 27일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미선출된 5개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7일 후보자 공보에 이어 △이과대-3월 30, 31일 △법과대-4월 1, 2일 △경성대-3월 30, 31일 △공과대-4월 1, 2일에 각각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과대와 사범대의 대의원장선거는 9일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7일 후보자 공보에 이어 3월 26일 각 단과대 내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주용 중선위장은 "지난해에 끝냈어야 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돼 부담이 크지만 작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유권해석부분에 있어 유권자는 3월 20일 현재 재학생 중학생으로 하는 등의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선위는 작년과 달리 총학과 총여의 투표일을 다르게 해 학생회를 더욱 건설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선거진행에 있어 작년 11월 선거와 다른 점은 명진관에서 전공수업을 듣는 야간강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명진관에 투표소 한 곳을 신설, 총학 투표지역을 기존의 8곳에서 9곳으로 늘렸고, 총여의 경우 명진관에 한 곳이 신설되긴 했지만 동국관의 법대, 사과대, 경성대의 두 투표소를 한곳으로 줄여 전체 투표지역은 기존의 8곳과 같다.

끈두박질 해버린 학생회의 위상을 되찾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할 '98학년도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이번 선거는 어느때보다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의미는 아니다. '무식한 사람',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본래 못하고 여러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 유식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식하고 고매하지 말고, 유식하다고 뽐낼 것도 없다. 아무리 때가 물어 보이는 거울일지라도 잘 닦아 빛나게 하면 모든 사물을 밝고 분명하게 관철해 주는 반면, 실사 잘 보이는 거울일지라도 닦지 않으면 때때로 밝음을 가리는 먼지가 두터워져 어두운 거울로 변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밝고 깨끗하여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관철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있다. 닦지 않고 버려두면 어리석어 천대받게 되지만, 부지런히 밝은 본심을 찾아가면 어둠과 괴로움이 없어져 나날이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이다. 그러나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이나 스승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위는 독선과 독재를 낳을 뿐이다.

불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종교이며, 자기의 독선을 깨뜨려 대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삶의 길이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살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의 눈과 귀를 막는 자는 고통과 멸시를 자초할 것이며, 나아가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사회는 어두워지고 국민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탓하기 보다 '현재의 나는 눈을 뜨고 있는지, 귀를 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참사람이 되자.

보리수

보고 듣고 깨닫자

이 법 산(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 선발

접수 12일 마감 ... 미시건 주립대는 4월말에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을 오는 17일 선발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원서접수 및 접수는 12일까지이며, 대정대학 개설전과목을 대상으로 모두 5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현재 학부 3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평균점수 3.0이상 이어야 하고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일본어에 능통한 학생이어야 한다. 교환학생은 파견기간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학기 수업료 반액의 장학금 지급 △과거대학에서의 취득학점 인정등의 혜택과 함께 대정대학에서는 교환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연체와 월 8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선발방법은 △학교성적 30% △일본어 테스트(필기30%, 회화30%) △면접 10%이다.

또한, 학술교류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말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의 교환학생도 선발한다.

미시건 주립대학 전과목을 대상으로 5명을 뽑는 이번 선발은 현재 학부 3학년 재학생으로 평균점수 3.0이상 이어야하고 토종점수가 5백 50점이상,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술교류부의 한 관계자는 "미시건 주립대학 교환학생선발의 경우 토종성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서 교환학생선발에 많은 학생이 응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술교류부의 한 관계자는 "미시건 주립대학 교환학생선발의 경우 토종성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서 교환학생선발에 많은 학생이 응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연중 공모

지원금·학점인정 등 혜택 부여

참사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화과 및 동아리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해서 공모한다.

7인 이상이 참가해 3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화과와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장학과 소정양식의 지원신청서

1부를 작성해 장학과에 접수하면 된다.

재택된 프로그램에는 각각 20만원씩, 총 2천만원(1백개 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며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1학점을 인정해 주는 등의 연계지원이 따르게 된다.

고수동정

- ▲윤병식(불교학)=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해외연수 특별기금에 의한 연수차 프로그램 3대차량 방문.
- ▲최효식(국사학)=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해외연수 특별기금에 의한 연수차 중국 방문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약정)자 현황
(기간 : '98.2.23 - 3.6까지)
₩30,797,580(29건)

- * 일반발달기금
- 김소영(역사교육98졸)10만원
- 김용표(불교학부교수)1백만원(합1백50만원)
- 김재영(한국어문학부98입학)1백만원
- 류중기(도서관 열람과장)30만원(합130만원)
- 박수현(불교신도)1백만원
- 부산농인회(회장 김우위)2천만원-정명조 부총장 조성
- 산업기술대학원97전기졸업생일동(경북수여97명)2백90만원
- 유주연(불교신도)1백만원
- 원경희(물리반도체과학부98입학)1백만원
- 이계영(경주 전신정보학부 교수)6백만원(합7백만원)
- 이동은(불교신자)3만원
- 이상대(불교대학원)1백만원
- 이상로(전자계산88졸,동국전신정보대교)500만원
- 이준영(불교신도)1백만원
- 장기억(불교신자,경일제책 상무)1백만원
- 장석희(불교대학원)1백만원
- 정범수(경찰행정98입학)1백만원
- 김진희(자연과학부98입학)20만원
- 정혜련(선학4년)1만원(합13만원)
- 조재덕(독어독문93입학생의부)10만원
- 주영준(기타)50만원
- 대전희(기타)20만원
- 한우석(신문방송98입학생의부)20만원

- * 동국사랑저금통 기금
- 곽노성(경제통상학부 교수)23,180원 김경미(법인사무처)41,270원
- 김진환(기획과 직원)23,160원
- 정성호(경주장학과장)43,900원
- 조영희(정치외교88졸,광진인쇄대교)68,000원
- 최광재(입학과)10,230원

계금 100주년기념사업본부

동대신문 수습기자 모집안내

-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 응시자격: 현행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취재·사진기자
-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 원서접수: 3월 18일(수) 오후 5시까지
- ▲ 전형방법: ①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면접
- ▲ 면접일시 및 장소:
서울캠 3월 18일(수)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경주캠 3월 19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국대학교 언론을 책임지는 동대신문사!

대중언론 창출 그 한길을 가는 동대신문사!

신문의 새지평을 여는 동대신문사!

신문은 열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동대신문사에서 꿈의 나라를 펼쳐 보시다!

동대신문사

대학원 '학술연구비' 명분없다

원칙없는 예산집행 ... 명확한 기준 절실

대학원의 등록금 내역 중 기타경비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징수되는 '학술연구비'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일반대학원 자체비로 운용되고 있어 대학원 총학생회(회장 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와 대학원 교학부(부장=박정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술연구비는 총무처에서 관리하는 납입금과는 별도로 대학원장 명의의 징수되는 것으로, 현재 학생회비만 납부하는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들은 학생회비와 학술연구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대학원 교학부측은 학술연구비 징수의 취지를 부족한 학교지원금(1천 8백만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연구비를 학생 자체 지원활동 및 학술지원금비 일체와 일반 대학원 전반의 경비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측은 "행정편의에 치우친 처사"라고 반발한다.

'98학년도 1학기 학술연구비는 3만 5천원으로 대학원생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해 2만 5천원에서 1만 원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 교학부 측에서는 "지난해 이월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원 적자했다"고 밝혔지만 일정한 원칙과 예산책정 없이 이뤄진 대학원 교학부의 학술연구비 집행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므로 적자를 채우기 위한 1만원 인상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학원 교학부의 원칙없는 예산 집행은 학술연구비의 명분까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지난해 운용된 학술연구비(8천90만1천원) 중 순수

하게 학술연구 지원비로 지급된 금액은 불과 5백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활용됐다고 한다. 이처럼 학술연구비는 학생회비에서 마땅히 책정되어야 할 학생자치 지원활동 경비로 이용되고, 대학원 교학부의 기자재 구입비 등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 박혁(정치학 석사과정 1학기) 사무국장은 "원칙없이 이뤄지는 행정에 순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학술연구비의 타당한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학기 학술연구비 납입을 거부하겠다"며 강하게 대응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당국의 지원비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등록금이 본교(2백22만 9천원) 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중상대(2백10만8천원)와 단국대(2백 25만3천원)의 경우 각각 1억원과 4

천만원의 학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본교의 학교지원금 1천8백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술지원비를 받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 납부한 학술연구비마저 순수한 학문 연구에 쓰이지 않고, 대학원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고 있어 본교 대학생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학술연구비 활용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할 문제이다. 대학원 교학부 측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대학원 총학생회측과 꾸준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학교당국도 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학교지원금을 확충해 대학생들이 그들의 본분인 학문연구에 전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미경 기자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직원노조(위원장=김창욱)는 오는 11일 오후 4시 교무위원회실에서 △ 사무기능직 전향 △ 신규직원 채용계획 △ 기능직 인력운용 △ 정기노사 △ 기타 등의 안건을 가지고 '98년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노조측은 '98년 임금교섭도 요청할 계획이다.

도서관, 연장근무실시

'98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아 도서관(관장=임호일·독문학)이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각 자료실 별로 △2층 과제 도서실은 평일 09:00부터 20:30까지, 토요일 09:30부터 23:00까지 △2층 불교학 자료실과 일반 대출실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 09:30부터 13:00까지 △3층 정기간행물실과 참고자료실, 학위논문실은 평일 09:00부터 09:00까지, 토요일 09:30부터 23:00까지 업무를 실시한다.

한편, 1층과 4층의 일반열람실은 방학중과 같이 06:00부터 24:00까지 개방한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 열람객 및 최봉주 계장은 "학생들이 변경된 각 자료 개방시간을 잘 알고 도서관 이용에 차오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느덧 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새싹이 고개를 내밀며 봄을 알린다. 개강 첫주인 지난 4일, 학생들이 불상 앞 잔디밭에서 봄을 만끽하고 있다.

신입생 모의 토익 응시율 75%

최고 9백 30점 ... 오늘 성적우수자 시상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지난달 18일 실시한 '98학년도 신입생 모의 토익시험응시율이 75%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응시율 55% 보다 20%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과의 관계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오전에 치른 후 오후에 토익 시험을 실시해 응시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모의 토익시험 문제 수준은 지난해 B급으로 치러졌던 것과 달리 공인 토익시험과 같은 A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가 9백 30점(오연준·영문1)으로 지난해 8백 60점 보다 70점이나 높다.

한편, 취업과는 모의 토익시험 성적 우수자 25명을 선발해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에 교무위원회

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지며, 시험결과는 내일부터 각 과 사무실에 비치해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전과·복수전공자 발표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학)는 지난 3일 전과제도와 복수전공 제도의 결정자를 발표했다. 3학년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수전공 추가접수를 받은 이번 전형에서는 지원자 28명 전원이 합격했다. 이중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제 1전공

98년 1학기 동학의 선거를 시작하는 30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장

지난 97년, 98년 학생회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많은 논란을 낳고 불완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회 선거는 바로 학우들이 주인체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생회의 대표자를 세우는 것으로, 더 크게 힘을 모아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선거에서 보여진 모습은 학생회가 학우들의 힘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더욱 큰 고통을 남음으로써 학생회의 위상을 한층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알고 있듯이 지난 선거에서는 5개 단과대학 미선거, 2개 단과대학 대의원 미선거, 총대의원회 미선거 그리고 유권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서의 논란, 개표후 총학생회 당선자측의 사퇴, 총학생회 당선자측의 당선 불인정으로 이어진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선거까지 동학의 학생회 선거는 많은 문제를 안은 채 일단락되었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으로 나타나듯이 학생회 또한 단과대학 학생회가 올바르게 서고, 그 힘들이 모여 일한 이천 동학의 학우들을 책임지는 총학생회로 모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못한 현실로 인해 우리는 이번에 또 한 번의 큰부담을 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98년 1학기 학생회 선거를 진행하는 30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입장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직전 총학생회·총학생회 선거에서의 문제는 이번이 중선위의 무리한 유권해석으로 발생한 중선위의 한계라고 보고, 따라서 올해 중선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선거 제반에 대한 모든 입장을 밝힘으로써 학우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학생회칙상으로는 재투표/재선거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월에 진행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8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선거] 제95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07조 [업무 및 권한]에 따라 중선위에서 제반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총선거의 유권자는 1998년 3월 20일 현재 재학중인자로, 휴학하거나 재적된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선거인명부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월 24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 각 단과대로 총선위와 참석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난 총학생회·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투표기간이 길어 총학생회의 개표가 늦어지고, 총학생회 당선자측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총학생회 당선자측에 공동시위를 제인한 것은 학우들의 소중한 권리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또한 학생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선거는 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학생회를 학우들의 믿음과 일꾼들의 노력으로 건설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선거기간을 분리하여 시행합니다.

다섯째, 이번 선거를 책임지는 중선위는 학생회 선거가 명확하게 학생회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학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으로 30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8년 1학기 동학의 학생회 선거를 진행할 것이며, 선거에 관한 모든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원만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3월 13일까지 중선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내고 실현하는 자주적 공동체로 학생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무관심을 버리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동학의 일한 이천 학우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30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무료교육

- 강좌 : 초보자를 위한 인터넷 기초강좌 (2시간 완성프로그램)
- 시간 : 3월 10일(화)부터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 교육 내용
 - 개인 PC에서의 인터넷 접속
 - Netscape Navigator
 - Netscape Messenger (E-mail) 활용
 - Plug-in을 사용한 인터넷 활용
- 강사 : 황윤정(영교과 4년)
 - 현재 (주)인텔 Internet Cafe운영 이슬범(기계과 4년)
 - 동국대학교 컴퓨터연구회 Language강사
 - 동국대 Multimedia소개 CD-ROM Title개발참여
 - 현 (주)일명시스템웨어 가상현실 프로그래밍 참여 중
- 신청방법 : 방문하여 예약을 해놓거나, 해당 교육시간까지 교육장 오면 됨
- 장소 : 계산관 1층

기타사항은 여학생부처(260-3056)로 문의 하십시오

여학생부처

'98학년도 교육실습비 접수 오리엔테이션

'98학년도 교육실습에 따른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 대상자 : '98년 8월 졸업예정자 및 '99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상 및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기간 : '98. 4. 6(월)-5. 2(토) 4주간
- 실습비 : 일급 육만오천원정(65,000)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비 접수 및 교육실습 일시, 명찰교부 : '98. 3. 16(월)-3. 17(화)
- 접수 및 교부처 : 사범대 교학과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98. 3. 24(화) 17:00- 중강당

사범대학장

회전무대

공간

O... "이 학생들에게는 집이 없네요!!!"

3월 2일,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동안에는 어김없이 새내기들의 파릇파릇한 움직임이 보이고,

그러나 이 생동감 속에는 학부공간이 없는 새내기들의 비애(?)도 함께 있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불상앞에서 계속 떠돌고 있는 새내기에게 심정을 물으니 한마디 "학부공간 만들어 달라고 부처님께 예불드리러 왔습니다"

극회(?)

O...요즘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놓고 쉽게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연출된다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명배우들이 각본 없이 총 출동해 팽팽한 신경전과 격렬한 말다툼, 몸을 아끼지 않는 육박전을 비롯해 모노드라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면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소화해내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여기가 국회인지, 극회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구만"

결말 대학(?)

O...지난 6일 종합대학으로는 최초로 단국대학이 부도를 냈는데... 알고보니 단국대학은 의과대학 신설, 용인에 신 캠퍼스 신축 등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얻어 썼고, 게다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령회사의 사기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학문 연구에 힘써야 할 대학들이 요즘 왜 이리도 무리한 재정 운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회전무대자 왈 "걸으면만 대학이네요?"

배짱이

O... 지난 2일, 개강 첫째날, 재학생들이 뭉개같이 몰린 곳이 세곳 있었는데,

다름아닌 본관, 해화관, 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마당.

이유인즉 수강 과목 시간표를 미리 적어두지 않아 뒤늦게 수강 과목 및 강의실 등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이 때문이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배짱이(?) 학생들에게 한마디, "강의실 찾아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간표부터 확인하자!"

새정부에 바란다

시사논단

양심수 전원석방 새정부의 시금석

"만일 한 사회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감옥을 들여다 보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다고 한다. 구태여 유명 작가의 말이 아니더라도, 감옥의 인권이 그 사회의 인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생각에는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감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심수와 미전향 장기수의 문제는 우리의 인권사상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점을 재삼 일깨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제 민간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지난달 1백여명의 '한국내 양심수 명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지난 2월17일 현재로 양심수의 숫자를 4백73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미전향 조장기 장기수'가 23명이며, 그 중 17명이 30년이상, 1명은 40년 넘게 0.75평 방에 갇혀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그들은 '피로 얼룩진' 전향 공작에서, '외양간에 매놓은 황소보다도 무식한' 전향공작자의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끈질긴 여론에 대하여, 지난해 말 김영삼정부는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한 사람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세계의 관계자들을 실망시켰다.

'양심수'란 용어는 물론 법률용어가 아니다. '양심'이란 말 자체가 벌써 도덕적 의식이요, 판단인 점에서 이 말은 법률적 정신인 도덕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권력자에서 양심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에 근거한다. 한국사법들이 양심수나 아니냐 하는 시각 차이는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이 현실이다.

양심수가 마땅히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은 우리나라의 양심수 체제로 조국분단에 따른 남북한 방전체제의 희생자라는 시각에 바탕을 둔 양심수의 대부분은 약법 중의 약법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의 골레를 쓴 이들이며, 그 밖에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과 같은 군사정권 시대의 법률처에 따라 탄압을 받는 경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 가입죄' 혹은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단죄를 받게 된다. 특히 간첩죄는 죄하 7년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서, 장기수들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전향하지 않으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되고, 출소 뒤에도 사회안전법이란

것이 있어서 형의 연장과 같은 감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공정한 재판으로 일생을 감옥 속에 갇혀 고생하는 장기수와 한층더 사건 관련 구속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전 '정운영 예세이'에 소개된 장기수 정순택 할아버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장기수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왔으며, 그 양심의 척도는 바로 통일조국이었다. "조각난 국토가 정상이나? 갈라진 민족이 본연이나? 외세의 지배가 본연이나?" 이 물음에 '아니다'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실망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1992년 9월 26일에 안기부에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잡혀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전주교도소(214번)의 손병선(60살)씨는 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인을 잃고, 따님 손민영(37살)씨까지 5년형으로 감형교도소(2001번)에 수감되는 중비박산을 당했다. 이런 장기수들은 특히 과거에 인권이 거의 무시되었던 구시대의 약법을 당했다. 이런 장기수들은 특히 과거에 인권이 거의 무시되었던 구시대의 약법을 당했다. 이런 장기수들은 특히 과거에 인권이 거의 무시되었던 구시대의 약법을 당했다. 이런 장기수들은 특히 과거에 인권이 거의 무시되었던 구시대의 약법을 당했다.



김태준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이제 여자가 바뀌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개혁에 대한 기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 대통령도 양심수 사면에 대한 4대 원칙을 대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고, 여기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선정한 양심수를 최대한 사면할 뜻을 담았다. 그러나, YS정권 말기에 대학생을 포함하여 2백여명 넘을 정밀검사를 받았던 사면 대상자가, 새 정권이 선 위에는 80명선으로 발표되기도 하는 등, 아직도 사면의 기준과 범위가 흔들리고 있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IMF시대를 비롯하여 최근에 두드러진 대기업과 정치권의 부도덕성은 바로 이 사회의 양심이 땅에 떨어졌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양심수들의 양심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통일의 씨를 키우는 일이다. 양심수는 모두 석방되어야 하고, 이것은 새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설

학생회 선거에 바란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및 5개 미션홀 단위 학생회 선거일정이 이번주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가시화된다. 재선거를 준비하는 요즘, 97년 선거가 투표율 저조 및 중선위의 유권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벌이는 논란과 더불어, 당선자들이 사회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난해 불신으로 얼룩진 것을 본 우리는 작년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는 다짐을 해본다. 작년 총학생회·총여학생회 당선자들의 당선사퇴까지 불러 일으킨 유권자 자격해석에 있어 중선위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표당시 우열좌우하는 모습은 현 학생회 조직 운영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선거과정의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선거는 총학생회 및 기타 중앙기구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중선위는 지난 선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입장으로 지니고 98년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고 준비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해 재선거를 하는 5개 단위들의 모습은 실추된 학생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몇 년째 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한 법대 학생회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자구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빼어난 반성으로 학생회의 초석을 탄탄히 하는 것이 위기에 봉착한 학생회의 과제라 생각된다. 우선 1차적 책임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지 못한 학생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와함께 학생회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학생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회의 역할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학생대표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건전한 비판으로 향상 학생회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불신의 벽만 더 높일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불기운의 새로운과 함께 학생회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학생들을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학생회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이과대, 경상대, 예술대 등

학내전화 호출기능차단

예산절감, 고통분담노력 긍정적

사전논의 불충분 아쉬움으로 남아

지난 1월13일 학교측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무선 호출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교내 전화사용료를 절감하자"는 취지에 따라 각 단과대 학생회실·학생 중앙기구·행정부서 전화기를 이용해 호출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수연구실의 경우 기존 시내, 시외통화되는 전화는 무선 호출 및 PC 통신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수정 조치하였다.

이러한 호출기능 차단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체는 학생들일 것이다. 학생 대부분이 호출기를 가지고 있어 호출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학생회측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중이던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총 인원 6백여명의 모 단과대 학생회실 전화의 호출이용 횟수가 5천통이 넘는 등 대부분의 단과대 및 학생기구에서 필요 이상으로 호출을 이용해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여론이 높게 제기되었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과다하게 호출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은 아직 절약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측은 "학생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내의 공중전화가 부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회가 책임지고 업무용 이외의 호출을 최대한 자제할테니 앞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호출기능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호출기 사용자는 일시적인 불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요구를 거부했다.

호출기능 차단에 따른 학교측의 대안은 △공중전화 증설 △기존 공중전화 위치의 효율적 재배치 △비배를 설치 등이다. 공중전화는 오는 10월에 7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된 상태고, 기존의 공중전화를 적소에 배치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공중전화 옆에 비배를 설치해 공중전화로 호출을 하고 비배를 돌려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측 배려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호출기능 차단



에 앞서 선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문과대의 한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호출을 이용하려 학생회실에 들렀다가 공중전화로 가지만 공중전화의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해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요즈음 학내에 배치된 공중전화에 5, 6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장면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또한 호출기능차단과 관련된 학생회측에서는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측에서 각 행정부서와 교수측에는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 주었으나 학생회측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MF시대를 맞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호출을 자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학내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학생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선행되지 못한 이번 결정은 향후 제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철)

참사랑봉사단의 활성화

본교에서 참사랑봉사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봉사단은 21세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동국문화창달이란 기치를 내걸며 나름대로 활동해왔다. 이제 봉사단의 활동결과를 진지하게 되돌아 볼 시점에 이르렀다. 서울캠 봉사단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반해 경주캠의 경우에는 애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듯하다. 여기에는 봉사활동의 주제로 나서야 할 일반 학생들의 인식부족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을 타하기 이전에 이러한 참여부족의 근본원인부터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측의 홍보가 다소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본교에 참사랑봉사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점이 그러하다. 타성적이고 안일한 홍보보다는 학생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홍보가 요청된다. 예컨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도

추진해 볼만 하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봉사활동 영역을 기존의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단체 등의 대외적 봉사활동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학내 야생화 가꾸기, 교내행사 지원, 쓰레기 분리수거 등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포함시킴으로써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방중에 이뤄지고 있는 봉사활동시간을 학기중 교양선택 또는 필수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1회 1학년 패스인정제에서 2회에 걸친 2학년 취득의 제도로 되도록 빨리 바꿀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참사랑봉사단의 취지를 살리는 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正道경영·초우량 LG

Advertisement for LG Global Challeng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 climbing a tall, thin structure. Text includes: '세계 초우량으로 극복한다!', '세계 초우량을 배워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한국이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주십시오', 'LG 21세기 선발대 -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The LG logo is prominent.

'98 LG 21세기 선발대 모집

- 1. 응모분야: 자연과학분야, 사회문화분야, 교육예술분야, 경제기업분야
2. 선발대상: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련함과 능력을 갖고 있는 각국의 정기간,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3. 응모분야: 응모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 초우량 수준의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팀
4. 응모자격: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해외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는 학생, 팀원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5. 응모팀 구성: 3명(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 전공 제한 없음)
6. 선발인원: 90명(30팀 x 3명/1팀)
7. 선발기간: 2주(2월 13일 ~ 14일)
8.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9. 제출서류: 참가지원서(소정양식), 팀명카드(A4용지 10매 이내), 팀명, 분야, 목적, 팀원명, 지역, 대학, 팀원 활동 계획
10. 응모기간: 1998년 4월 14일부터 1998년 4월 16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일에 한함)
11. 접수처: LG트렌트웨이 동관 지하 대강당 앞
12.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13. 선발결과 발표: 1998년 5월 20일 LG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14. 선발대상: 팀원보고서 제출(팀당 총 1개월 이내),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15. 우수 팀원 시상: 팀원보고서 상사를 통해 우수 팀원팀 시상
16. 기타: LG 홈페이지(www.lg.co.kr/21c)에서 기증(LG 21세기 선발대)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가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일제하에서 불교계를 이끌었던 종교적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의 대표자였던 용성조사가 3월 독립운동가로 "백용성의 달"로 지정 받았음에 스님의 일대기를 발췌하여 실는다.

편집자

“일제치하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백용성 스님이다”

“백용성의 달”에 대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일주 총무원장의 추사 중에서.

3월의 독립운동가 대각사상 백용성 스님의 일대기



龍成大師 師承影

용성선사는 1864년 5월 8일 전라북도 남원군(현재 장수군) 하반면 죽림리에서 탄생했다. 16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하였으며, 23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 뒤 전국 각 사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도 정진하였으며, 44세에는 중국불교계의 선지식들과 불법의 진리를 논하기도 하였다. 47세에는 '귀원정종'이란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불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해석하고 논박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맞이한 선사는 산수수행을 정리하고 1911년 48세 되는 해에 대각사의 간판을 내걸고 불교진흥과 민족진흥을 발원하여 불교계의 혁신사업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는 만해 한용운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에 4번째 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대문 감옥에서 3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기념사업·행사

대각사상연구회 설립 및 개원식

의의: 용성조사의 대각사상과 대각운동 및 근세한국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조사께서 주창하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연구도 겸하고자 한다. 장소: 서초구 서초3동 1589-7 현대전원 오피스텔201호 일시: 3월 13일 오전 10시 참석범위: 일원 및 내외귀빈, 일반신도

기념 세미나

의의: 일제치하에 있어서 용성조사와 한국불교계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학문적인 조명과 역할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목: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독립운동

- 립운동
- 장소: 대각사 대각선전
- 일시: 3월 13일 오후 2시
- 참석범위: 사부대중
- 기조강연: 임도문스님(세계불교성지보존회 이사장) "백용성스님의 사상"
- 발표자
- 한보관스님(동국대 교수) "백용성스님의 생애"
- 김광식박사(독립기념관) "백용성스님의 독립운동"
- 김광수박사(전 동국대 교수) "불교계의 독립운동"
- 홍윤식교수(동국대 교수) "대각교의 성립배경"
- 사회: 이도업스님(동국대 교수)
- 토론: 이법산(동국대 교수), 목정배(동국대 교수), 정병삼(숙명여대 교수), 전보삼(신구전문대 교수)



용성대사가 득도한 해인사 극락암

기고-새 봄의 훈풍

IMF 한파를 녹이는 종교단체간 '벽' 허물기



IMF 한파 속에서도 봄은 오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단결하는 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인 모양으로 종교간의 벽 허물기가 한창이다. 97년 12월 14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개원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불교 사찰의 개원식이 처음으로 한국 가톨릭의 수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던 것이다. 축사에서 김 추기경은 얼얼한 민족의 마음을 열어 종교 본연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될 것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가톨릭의 종교 화합의 메시지는 그대로 한국 종교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한 담례차원에서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은 98년 2월 24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열린 '경제난국을 위한 특별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하였다. 이러한 종교간 교류는 나아가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는 법이다. 예컨대 송일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였던 것이다. 송원장은 98년 1월 21일 꽃동네를 방문해 대교 오종진 신부와 점심을 함께한 뒤, 5백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하였다. 송원장의 꽃동네 방문은 97년부터 법불교계 차원에서 추진하던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계종 총무원이 매년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왔던 바, 이번에는 종교간 화합의 차원에서 꽃동네를 방문한 것이다. IMF 한파가 매서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종교적인 벽을 넘어 이루어진 사랑과 화합의 활동은 한국인에게 새로운 정신문화의 시대를 알리는 모범적인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그 동안 갈등과 질서 속에서 반목해왔던 종교단체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98년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불교방송이 기독교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특별방송을 마련하는가 하면, 평화방송이 불교영화의 TV 상영을 고려하는 등, 이러한 종교적인 벽 허물기는 IMF 한파를 계기로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벽 허물기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앞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서로를 부둥켜 안는 뜨거운 계기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 각국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더욱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한국 종교계의 일각에서 보여준 미담이 불씨가 되어 새 봄의 따뜻한 훈풍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하는 큰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이 승 영
경제통상학부 교수

여러분의 젊음으로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주십시오 21세기문화가족

- 지금 곧 신청하십시오
- 21세기의 중심은 바로 대학생
어려워합니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통해
어려운 미래를 가꾸어 나가십시오.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의 유명 문화예술행사에 할인혜택
 - 전국 2100여개의 호텔과 콘도 및 음식점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카드 제공
 - 일상의 위함에 대비한 상해보험 무료가입(1년, 1천5백만원)
 - 해외출장, 여행시 항공권 및 호텔 할인혜택
 -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 개최
 - 문화워킹진(98년6월) 장간예정) 무료제공
- 고품격 선물을 드립니다
 - PCS폰 제공
 - 고급 유선전화, 손목시계 제공 (회원비납부 없으며 PCS폰은 회원의 임의는 반드시 당이 시계의 당에 대해보내 보내드립니다.)
- 참여회사
 - 제일은행, 한국경제신문사, 중앙일보, 코리아호텔, 한진그룹, 한진관광, 진성시계
- 가입비 370,000원
- 회원모집장구 - 제일은행 전국 본지점
- 회원가입문의 - 21세기 문화가족(02-3446-2100) - 제일은행 전국 본지점



21세기문화가족

책소개

일본현대문학사

“오랜시간에 걸쳐 검토하고 분담 집필한 문학사답게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짧은 비평가들과 학자들의 도전적인 문제의식과 신선한 문체를 보여준다. 이 책은 기존의 실증적·문단사적인 틀에 박힌 문학사에서 벗어나 문화사·정신사적인 문학사를 지향하는 일본 현대 문학사의 의미 있는 저작이다”

일본 릿쇼대학의 호소마사오 교수와 4명이 쓴 이 책을 보고 국어교육과 교재적 교수가 번역했다.

교수는 직접 수집한 다양한 사진들도 함께 엮었으며 일본인이 보아도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문학과 지성사, 정가·1만 8천원

98새내기 정보뱅크

“후회하지 않는 대학생 생활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고민하는 사랑이나 대학문화, 동아리, 공부, 진로, 아르바이트 등의 내용이 랩시하는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한겨레 대학문화 기획팀이 기획·취재에서 편집까지 손수 작업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사, 정가·1만 2천원



요즘 대학생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가벼운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옛날 보다 정문과목의 지식의 양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어서 그 많은 지식을 소화하기에 벅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학문적 깊이가 너무나 없는 것 같다.

수업시간에 노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각 학과과목당 강의록을 미리 배우하여 강의시간에 그 밑에 줄을 긋고 설명을 보충하는 수준의 공부만 한다. 강의시간이 한정되어 미처 강의하지 않은 부분은 보지도 않을 뿐더러 교과서는 강의가 끝나도 손때하나 묻지 않고 새 책 같은 경우가 많다.

모든 자료는 복사기로 복사하고 공부 시간에 꼼꼼하게 노트 정리하고 교수의 강의를 한 자도 빠짐없이 적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보기가 힘들어졌다. 심지어 한글판 책이 잘 나와 있어서 영어원서 책은 구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니까 졸업후 전공을 공부할 사람들이 영문잡지나 영문원서 책을 독해할 능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외국지식을 받아 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길으로는 학문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모든 지식수준은 국내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를 찾기 쉬워 옛날 같으면 그 책을 다 읽어야 할 것도 인터넷에 요약한 내용만 읽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문명의 이기로 세상이 아무리 간편해지고 편리해졌다 하더라도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생들이 학문하는데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과학적 기구나 시설을 이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는 있으나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시험도 마찬가지다. 평이한 문제에서 조금만 깊이 있는 문제로 변형해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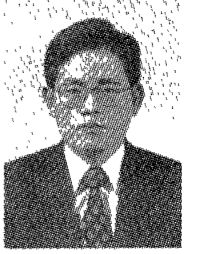
학문탐구 달하나 건강에

면 성적이 형편 없게 된다. 진리탐구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이 종교대학과 같이 광범위한 과목의 주입식 공부나 암기위주가 아닌 자기 자신의 전공과목에 심취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바란다.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학과의 지식을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 밖에 모른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학문에는 왕도가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학문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동국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서무규
의대대
피부과 교수

1회 네티즌 연극제

“연극사랑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네티즌 연극제,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에 한 몫



서로의 아이
다란을 기억하

는 네티즌,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들의 취미가 '연극'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연극을 아끼는 네티즌들이 뭉쳐 '팬'을 벌였다. 이듬해 '네티즌 연극제'.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장충동 경동교회 안에 위치한 여해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이 연극제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하이텔' '넷츠고' 등 국내 5개 PC통신사의 연극동호회 회원들이 꾸민 것으로 관객들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떻게 뭉쳤을까? 그동안 각 연극동호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공연

을 개최했는데, 이를 지난해 6월 각 동호회 대표들이 모여 연합공연을 제의,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연 준비를 해왔다.

5대통신 연극동호회 연합이 사이버공간에서 배우 및 스태프를 모집했으며 정식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백 50여명이 연극에 참여했다. “오래전부터 연극을 하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하는 천리안 연극동호회의 안상진(29)씨는 현재 구경고등학교 수학교사.

안상진씨를 비롯해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대 학생에서부터 30대 직장인까지 각각각색이지만 '연극'이란 끈으로 묶인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준비기간 중 이들을 어렵게 한

것이 세가지 있다. 시간, 공간, 그리고 돈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을 한양대학교 강의실에서, 세종로 지하주차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으며, 열정이 없어 직접 소품들을 준비해야 했다. 천리안 연극동호회의 '아기비행' 연출을 맡은 박원섭씨는 “오로지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낸 것”이라고 답답하게 말한다.

“프랑스의 아비뇽연극제처럼 매해 밤 아마추어 연극제를 치러내는 것이 꿈입니다” 네티즌 연극제의 총기획을 담당하는 이운영(유니텔·넷츠고 연극동호회 대표)씨의 희망.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제2회 네티즌 연극제'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아무쪼록 '제1회 네티즌 연극제'가 연극 공연에만 그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우누리 연극사랑 '굿덕터' 10일부터 13일까지 오후 7시반

하이텔 연극동호회 '실뿔극 자유이미지' 14일부터 15일까지 오후 3시반, 6시반

김미경 기자

강정구 교수가 권하는 책

아리랑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김산'의 사상 가치 지성과 좌절 속에서 더욱 강인해지는 혁명가적 감동을 받는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강정구 교수는 전한다. 김산이라는 조선혁명가의 생을 논픽션으로 다룬 이 책은 남 웨일즈가 조선독립 혁명가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받아적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네, 정가·5천원



90년대 소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깃털’ 소설, 다시 진지함으로 돌아간다

주제·문체의 조화 이루는 새로운 작품 기대

우리의 소설이 새로운 방향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아졌다. 미시적 담론이 주류가 되어 버린 현상에 대한 반동일 것이다. 사실 90년대에 들어 발표된 소설들 중에는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치중하고 문체의 감각에 의존해 쓰여져 한 줌의 깃털처럼 가벼운 것들이 많다. 특히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묶어 일컬어지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그러하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 같은 서사구조를 갖고 독자에게 묵직한 감동을 안겨 주는 소설들은 어디로 갔을까. 독자의 세계관

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꿔 놓을 만한 주제를 가진 소설들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의 독자들이 깃털 같은 소설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고무된 한 젊은 작가는 80년대까지 발표된 한국의 소설은 읽을 게 없다고까지 오만하게 호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소설의 정체(停滯)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소설 쓰기의 명제를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본다면 90년대 이전의 소설은 거의 '무

엇'에만 전념했다. 예술적 완성도를 획기하기 시작한 30년대 소설 이후 반세기 동안 형식과 기법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50년대와 60년대의 실존과 허무, 70년대와 80년대의 분단극복, 부의 재분배, 인권문제 등 문학이 나아갈 방향이 뚜렷했던 까닭에 작가는 주제에만 매달려 소설을 썼던 것이다.

90년대에 들어 동서 문명체제가 무너지고 문명정부가 들어섰다. 사람들은 대량 소비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 문학은 방향을 상실했고 낯설고 새로운 것을 찾

아 빠르게 변모했다. 문제지들은 서정성을 상업주의와 결혼시켜 낯설고 가벼운 소설을 양산시켰고 비평가들도 열심히 이에 합세하였다. 독자는 무거운 문체의 소설을 내던지고 감성에 매혹당했으며 그런 소설들은 어느 틈에 주류로 자리잡았다.

이 시기에 등장한 작가들은 김동진, 박태원, 염상섭 등 우리 현대소설의 선구로 회자되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탐구도 의면하고 그저 말 가무기에만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소설에서 아름다운 문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찬란한 언어와 새로운 기법으로 치장된 소설이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문학에 있어 아름다움이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언어가 갑자기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이나 예술의 사조가 그리

하듯이 다시 변화는 온다. 90년대를 풍미했던 가벼운 소설들은 그 가벼움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하여 맑은 우물처럼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최악의 경제한파는 독자를 신중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들은 소설의 기대지평을 다시 진지함으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하다. 지양과 모색을 거쳐 '무엇'과 '어떻게'가 미학적 가치를 통해 조화롭게 교차되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정한 작가는 자신의 생애라는 집을 헐어서 그 벽들로 소설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인간 존재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밝혀보려고 분투하는 발견자이다. 보다 치열한 작가정신과 생애에 대한 진지한 고찰,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소설을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하다.

이원규
국어국문대학부장사·소설가

가슴으로 만난 평양

“다만 후세인들에게 정확히 역사를 남겨야겠다는 심정에서 왜 평양에 갔다 왔으며,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객관적으로 써보려 합니다”

저자 문익환 목사는 민주구국선언서 관련 재판 상고심에서 유서를 책으로 펴낸 이유를 설명한다. 남북한의 고립된 문화의 틀을 넘어 진실의 이야기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 책이다.

실민사, 정가·3천 5백원



대학별곡 제 1계명 출판판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始終如一’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입니다.
저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목표와 과정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출발이 원대한 사람은 많으나
이룬 것이 원대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꿈꾸고 시작하십시오.
단, 처음과 끝이 한결같게, 서두르지 않되 쉬지도 말고,
그 꿈을 향해 쉽없이 점진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영상매체비평

광고편
결약·애국심 강조 광고
붂물
“광고,
더이상 ‘이미지’만을
팔지 않는다”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논의가 왕성하게 일어났었다. 이러한 문화적 취향이 한국사회에 갖는 여러 함의들은 재치되고도 광고에 있어 최소한 형식적인 영상의 이미지들은 두드러진 그 문화적 특성을 보여왔다. '프레드릭 제임스'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문화적 양식의 특징은 '깊이없음', '혼성모방', '정신분열적' '비판적 거리의 소멸'이라는 단어들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광고는 단순한 상품을 팔기위한 경제적 수단, 정보나 설득이나 상업예술, 허위유포의 제조장치, 이데올로기의 조작도구들이 융합된 것이다. 국내의 포스트모던 문화가 지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텔레비전 광고의 유형에 있어서 전통적 텔레비전 광고유형과 대별되는

반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서술구조가 해체된 이미지 중심적인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광고들은 광고가 사회적 반응물이자 사회변화를 자극하는 진동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IMF구제금융과 사회전반에서 느껴지는 불황의 여파는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주무기로 하던 인쇄 광고에 가격인하를 위한 X표와 아래로 향한 화살표를 접철시키고 있다. 텔레비전 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광고의 몰락과 새 광고의 출현빈도가 현저히 줄었으며 절약 강조형 광고나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광고가 중심이 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광고와는 달리 실제적인 형식과 내용도 합리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단지 경제적

인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가? '텔레비전'은 광고학자가 광고에 나타난 작품 문화적 틀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범주에 따르면 5~60년대의 텔레비전 광고는 나르시시즘의 단계로서 '매력' '관능'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70~80년대는 토레미즘의 단계, 즉 감각이나 집단 우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80년대 이후 진출한 포스트 모던 광고는 그 끝없는 욕망과 환각들의 이미지 중심적 광고였다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끝없는 욕망과 환각의 담판에 사로잡혀 지나친 소비를 참혹했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최근의 여러 경제지수들처럼 광고에서도 과거로의 회귀적 복귀가 행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결단 번드르한 문화적 환경들의 사라짐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광고는 현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 광고는 생산과 소비가 확대 재생산 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시에 소비자가 상품을 정신적으로 점유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의미나 재미를 특정한 방향과 내용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서 현대문화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로 복귀하는 최근 광고들의 몰락과 형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그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 의미심장하다.
안명규
성균관대 신빙과 박사과정

경제위기시대, 문화는 사치인가?

“예산 삭감·추상적인 기획안, 국민기대 묵살 소수 독점 아닌 대중 문화창달 주력해야”



문화계 해방구는 없는가?

밥 먹기와 영화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대답은 두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배가 고프니 사람은 밥을 먹을 것이고 배가 부른 사람은 영화를 볼 것”이다. 과거 7~80년대 우리의 모습은 배가 고프서 밥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의 모습은 영화를 보는 이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개인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IMF시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을 앞당기며 강요당하는 시기에 영화관람은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더욱이 문화라는 것이 삶의 내용을 채우는 일상의 존재이기 보다는 오락거리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고액의 장식품으로 치부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다. 지난해 23일 문화부의 문화예산집행률 발표는 “새정부 문화경시”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일간지 문화면을 장식했다. 무엇때문일까? 이는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현

금대중대통령이 취임전 약속했던 ‘지원’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계 관련 공약이 문화예술에 소홀했던 그간의 정부와는 다른 차이점으로 대중에게 깊이 각인돼 대중들로 하여금 그 실행을 요이주시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창작활동에 대한 검열을 원칙적으로 폐지, 검열철폐·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과거처럼 소비가 아닌 대표적 인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강조하고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시대”라고 예견하기도 했으며 영화진흥기금을 5백억 이상 확보, 교육방송공사 설립, 연합통신의 독립성 보장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2000년까지 정부예산의 1%이상을 문화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공약은 문화계의 희망과 기대를 단번에 충족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경제난과 맞서고 있는 정부의 긴축예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부문은 과감히 버려졌다. 문화체육부 예산기획과 김계철 사무관은 “당장 차질이 빚어지는 일에 대해선 예산삭감을 단행하지 않았다”며 “2002년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준비나 전 조선총독부 건물에 소장하던 유물을 옮길 중앙박물관 건물 공사 등은 경기가 나아지면 곧 더 많은 시설부자를 할 것이며 한국전통문화화교건설과 한국문화비전 금고등 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은 그리 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는 건물 하나가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가 아닌 ‘기초’의 김대통령이 가졌던 문화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선거가 끝난 이 마당엔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문화활동 인·허가’ 규제의 대폭완화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 강화와 활동기반의 확충, 문화시설 이용의 극대화, 운영의 활성화, 영상물 심의 기준 개선’ 등의 문화정책 또한 ‘예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추상적인 계획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성일(키노 편집장·영화평론가)씨는 “경제난과 국내 문화행사의 위축되고 외국의 문화유입이 수월해진 이때 정부가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체문화생산은 더없이 힘겨워 질 것”이라며 “김대중정부가 비록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해 문화를 소홀히 한다면 역대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문화정책 재고를 주장했다. 그 바탕에는 더 이상 문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일 수 없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인류가 원시대로 회귀하지 않는 한 문화는 독자적으로 하나의 생산물이며 또한 고부가가치의 생산물이다. 언제까지 경제구조에 맞춰 문화개발의 방향들이 맞춰져야 하는가? 우리는 김대통령이 누차 얘기했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경제살리기=나라살리기’ 구조 속에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극복정신이 정착 필요한 곳은 우리가 생활로 정착시키고 생활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부문이다. 우리는 경제발전도 정책 속에서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자체문화 생산을 소홀히 해 끝내는 문화주체성을 상실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적자운영 속에서도 대기업의 협찬으로 근근이 막을 올린 ‘거품공연’이 대기업의 협찬 거부로 그 자리를 잃어버려 공연문화내부의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문화정책의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때 정부의 적체적소적인 투자는 한층더 빛날 것이며 문화발전의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도 정책 속에서 문화가 퇴보해버린다면 영영 문화는 소수의 독점·소비 상품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진 기자

자아인식 램프

학교 안에서

토막
연극영상학부 2학년 동계 워크샵 및 신입생 환영공연.
토막은 일제 식민지하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유진진 원작, 정덕주 연출
13일부터 15일까지 오후 4시반, 7시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소극장에서.

민족사연구회 사진전시
민족사연구회에 서 복합의 시각 위기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한다.
오늘(9일)부터 14일까지. 혁명관 앞에서 상설전시.

학교 밖에서

빈 의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꽃다지의 3월 콘서트.
“세상을 바꾸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고개 숙인 남자’ 등의 노래를 통해 노동자가 담당하게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 왔던 삶의 모습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노래로 엮어냈다.
한편 꽃다지는 실업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음악회 ‘엄마, 아빠, 힘내세요’를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주 1회씩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내일(10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오후 7시반, 금·토 4시반, 7시반, 일 3시, 6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입장료 2만 원. 문의 845-3580 (꽃다지), 3673-4466 (동숭아트센터)

2회 서울국제 독립영화제
서울국제독립영화제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올해는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공식상영작”부문에 ‘긴고 감자’를 비롯한 29편의 국내외 단편이 소개되며, ‘특별상영작’ 부문에 일본의 뉴웨이브 영화, ‘뉴디스커버리’, ‘뮤직&시네마’ 등이 소개된다.
또한 본교 연극영상학부 전교수이기도 한 유현록 감독의 회고전도 열려, 그의 작품 ‘오발탄’ 등 3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세네코와 코이아트홀에서. 문의 3442-0001

낮은 목소리
한국영화진흥관 허리우드블루관에서 기획한 한국영화 다시보기 두 번째 시리즈. 중군위반부 할머니를 다뤘던 형식으로 엮은 낮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 2를 상영한다.
14일부터 27일까지. 허리우드 극장에서. 편당 6천원. 문의 597-5364

예산집행 구조조정 필요... 교육·민간부문 투자 선행돼야

기교 - 예산 삭감에 분개만 할 노릇인가

지난 1월말 주요 일간지에는 '88년도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게재되었다. 물론 IMF구제금융 시대라는 상황에 따라 일견 당연한 삭감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 예산안이었다. 그 중 10%가 넘는 삭감의 대상에는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구조개선, 환경개선, 문화체육 등의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경주 문화의 스포, 강원 관광연구소, 제주 섬문화축제, 부산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등의 지원 예산이 약 30% 삭감되었다. 참으로 격정스러운 상황이라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열되는 마당에 증진보다는 삭감이라는 처지에 놓인 것은 누가 보아도 21세기의 문화적 침체와 열등감, 더 나아가 종족이라는 우려할 상황에 빠지기 쉬울 듯하기 때문이다. 또 그런 거시적인 전망이 아니라도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질적, 양적 저하는 삶의 기반을 이루는 의미구조의 빈곤을 가져오는 최악의 상황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의례적인 흥분과 요구로 시간과 힘을 소진하는니보다는 합리적인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려운 현실을 항상 문화예술 분야의 희생으로 대치하는 분노나 뉘그러움은 어떠한 개선도 이룰 수 없다. 우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이란 것을 화두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이루어진 거품과 과다경쟁, 특히 상품화와의 치열한 경쟁을 추스려야 한다. 차분히 실험과 깊이를 논하기보다 돈과 인기만을 위한 행정과 전지가 주를 이루었고 지방 자치단체가 준비하는 문화행사들도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논리로 치러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시설에 투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작 문화예술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했던 곳은 바로 그것이다. 소위 국립이나 공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열악한 환경과 분기, 교육행정과 커리큘럼은 정말로 외국의 구제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흡해 일각에서 불고 있는 개혁조정에 같이 생존을 위한 조정안을 인위적으로 부여하지는 것도 아니다. 예산과 관

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교육에의 투자는 예산의 삭감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속고하여 과감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미흡하나마 민간차원에서 시민 주도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참여의 장을 넓히고 꾸려왔다. 공교육이 소홀하지 못하는 저변의 문화적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에는 바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전문성을 육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관료나 교육자, 학생, 시민)이 생각을 넓혀 멀리 길게 보는 전환이 정말로 절실함을 느낀다. 문화와 예술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또 엄청난 결과와 전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면, 그 기저에는 하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모든 부문에서의 조화와 여여에 기여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어야 단순히 부당한 예산안의 삭감을 대하는 합리적인 발전적인 방안도 맞이하게 되리라 믿는다.

유양근
본교 연영과 석사과정

메아리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카포리오나 케이트 윈슬렛이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이올린을 켜던 미련한(?) 악사였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배필의 노동자들이었다. 할리우드 사상 최대의 제작비용과 상영시간을 감수하고 제임스 카메론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상징적 존재인

호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비극적 종말과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아서 있다. ▲또한 그것은 80년전 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철저하게! 일등실과 이등실, 그리고 삼등실이 구분되어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세계화, 일등주의에 눈먼 지도자들의 무모함과 체면, 외양만을 중시해 구명선의 수를 줄인 정책입안자. 그리고 소수의 가진자들이 사치와 낭비를 즐기는 그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배를 움직이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침몰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가진자와 못가진 자의 위치는 분명했다. 배탈창에 있던 노동자들은 침수시간을 즐기며 희생양으로 가장 먼저 죽어갔으며 상등간의 문도 일등간 손님이 구명정에 다 탈때까지 잠겨 있어만 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을 보고

살아가는 가진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더러운 상것'들과 함께 구명선을 탈까 근심한다. ▲결국 가진 자는 살아남았고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다. 제임스 카메론의 질문은 그것이다. '같은 배가 침몰했는데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일까?' 그러나 질문의 답을 찾다보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모는 돈으로 영화를 수입해보더니! 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일등간, 이등간, 삼등간 아니면 배탈창? 영화에 대해 덧붙이자면, '타이타닉'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2,3등간 손님과 배탈창의 노동자에게 그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기영 편집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장은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양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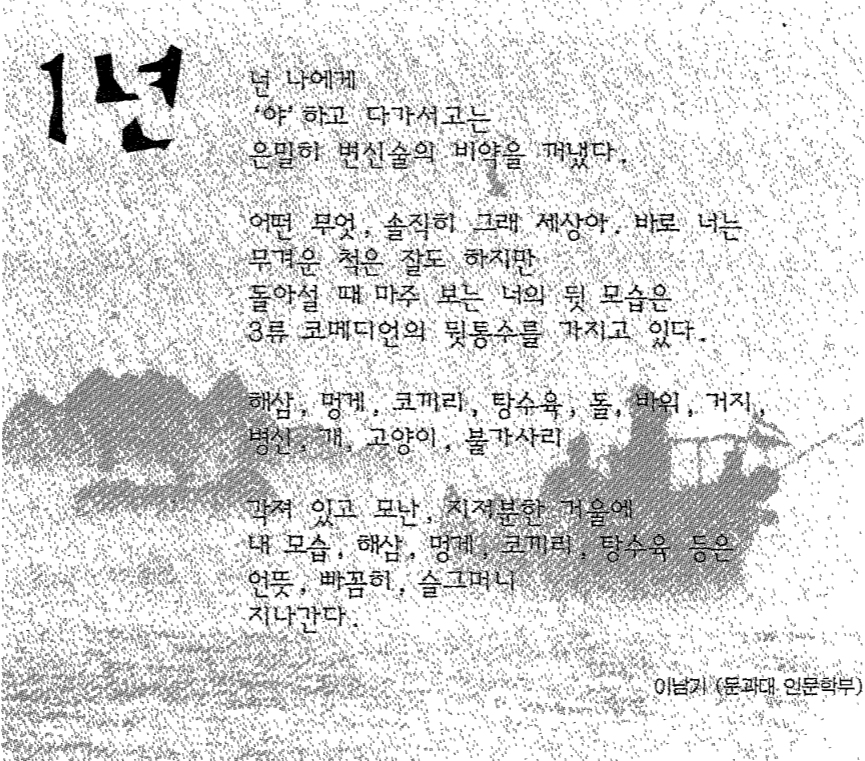
△전노사면 안말이나! 양심수를 풀어주세요. △석방하라. 풀어줘라. 양심수들. △살아있는 진정한 양심을 가진 그들에게 자유를. △양심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나? -전직 대통령 △양심수란 단어는 법적으로도 완전 정의가 내려진 부분이 아닌 주관적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법학도 중 △내가 명령하노라. 양심수 고함있오. △전노는 큰집 호텔, 양심수는 큰집 여인숙.

△양심수도 돈종 많이 먹으면, 전노같이 나올 수 있을까? △양심수고도소에는 절대 외부에 있는 정보 글지. 왜냐하면 전노사면 뉴스알면, 모두 비판자살. △비양심과 양심의 차이는 돈의 유무. △공짜로 콩밥먹고, 공짜로 독방을 쓰고싶지 않아요 쓰는 사람. △양: 다리 안걸치고 심: 지하나 굳혀 수: 수방관하지 못한 사람들 △똥! 나도 국가보안법에 걸릴까봐 말 못하겠어 △내가 아는 양심수는? 박노해, 황석영, 진관남심 음~ 그밖에 또 많지요? △과거를 팔아 오늘을 가지도 말고 과거를 잊지도 버리지도 말고 저마다 지금 선 자리에서 손잡고 지난날의 그 열정 그 헌신 그대로 오늘을 오늘의 투혼으로 미래를 살자 -박노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없대요. 그냥 다 빨강이라고 하던데... △결코 변화해서는 안될 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양·심·수·를·석·방·하·라! 투쟁!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그들이 울 때까지. △그래도 울 때는 나오겠죠?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다 양심수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모자라서 더 이상 양심수를 만들지 못할 때까지. △양심수란? 사상·신념만의 이유로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양심의 자유란? 외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사람의 점진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 -사잔 찾아 왔어요. 이쁜 98.

학부제 문제점
진지한 논의 필요

일만 이전에 달하는 동안인 중에서 학부제 적용을 받는 학생은 70% 이상이다. 학부제로 인해 통합된 기존 과의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며, 해마다 학부로 입학하는 학생수 만큼 '학부생'은 늘어나고 있다. 학부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학부제가 제대로 이야기 해보지도 못한 채 어느덧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된 것에 있다. 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이었던 '학부제'는 '깜작쇼' 정책의 대표격이다. 알려졌듯이 '5.31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수많은 교육제도 개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작년 우리는 전공선택제와 인원 제한 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불확실한 원칙에서 학부제가 정말 준비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전공선택제보장의 문제, 기초학습권문제(강의의 대형화, 질저하), 자치공간의 문제 등은 이미 알려진 문제이다. 그 중에서 자치공간의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대학은 '참여와 자치'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은 학생이며 공동체 문화의 근거지는 바로 자치공간(학생회실)이다. 현재 학부학생회실은 대부분이 인접받지 못한 공간이며 학생회실이 없는 학부도 있다. 지난 2월에 생명자원과학부 학생회실에서의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마찰은 근본적으로 학부 학생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학교당국과, 학부학생회의 위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학생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부대표자 연석회의'는 96년도의 호지부지되었던 연석회의의 길을 밟아선 안된다. 통약의 학부제는 단과대별로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전면 적용되는 곳, 부분 적용되는 곳, 적용되지 않는 곳등 각각의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내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학생회 일꾼들만이 고민한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은 더 이상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수많은 학우들을 학부제의 실험대상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현재의 혼란함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원의 일주제인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지난해 덕성여대의 '학내분규(?)'로 인한 전면 학과제도로의 전환을 눈여겨 봐야 한다. '학부제다, 학과제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덕성여대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대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올해 함께 학부제에 대한 논의가 동국 곳곳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진범(문과대 영문과)



독단적 식비 인상안 발표
학생의견 수렴 선행돼야

새학기 때 쓸 용돈이나 벌어들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긴 겨울방학을 보냈다. 개강을 하여 오랜만에 보는 선배들과 인사도 하고 동기들을 만나니 진짜 개강을 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할 양으로 자판기를 본 순간 커피값이 올라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하는 심정으로 옆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에 눈을 돌리는 순간 나의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졌다. 음료수 값 역시 올라 있었던 것이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학생회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들의 가슴을 또 한번 긴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방학 전까지 만해도 정식의 반찬이 5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강을 하면서 식당의 정식 반찬이 3개로 줄고 단무지 깎두기는 온데 간데 없었다. 한마디로 식단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건물 지하에는 식당업주측에서 정식값을 1700원으로 인상시킨다고 요구했다하니 이것이 타결된다면 나의 아르바이트비는 발값으로 다 쓰일 정도이다. 복잡한 과선배는 근대 밥보다 부실하게 나오는 정식밥의 값을 올린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단식투쟁이라도 해서 저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 선배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긴했지만 이는 우리 온방울 모든 학우들의 똑같은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식당에서 학교밖 식당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상실된 식당 배식과 개강 하지마자 자판기 값을 올린 것은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상호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한국에 무심경한 식당배식과 커피값을 비롯한 음료수 값의 인상은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이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뤄진 가격인상이 아직까지 가격이 인상되지 않고 있는 품목의 인상마저 부추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동진(법정대 법정학부)

동문칼럼
IMF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박익룡 (법 89졸·경주병원 기획감사과장)
요즈음 신문지상 매스컴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 IMF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며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IMF이기 때문에 절약해야 한다고 할 정도이다. 국난의 시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IMF시대에 우리 모두가 되짚어 생각해 볼 것을 찾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그 첫째로 옛것과 새것의 조화, 신구의 조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옛것은 무엇이든 새것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에 있어서 옛것과 새것의 구분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신세대 X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조화가 아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가 주어진 것이다. 즉, 은고지신(溫故知新)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일 혹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순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IMF라는 위기가 생겨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앞을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인 것이다. 세번째로 자신에게 걸맞은 옷을 입자는 것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주체성이 상실되어 망판대해를 표류하는 모습들이 현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이제 주체성을 찾자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살려 가면서 생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고 자기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본연의 신분으로서 학업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복지부동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젊음과 패기를 지닌 용기있는 젊은이로 거듭 태어나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대학생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약광장

다함만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돈까스(1300) 집탕밥(1500) 생선까스(2500)
화	쇠고기 볶음밥(1300) 짜장밥(1200) 정식(3000)
수	양송이 볶음밥(1300) 콩나물 찜제(1300) 돈까스(2500)
목	오징어 탕수(1500) 후랑크 볶음밥(1300) 햄박(3000)
금	열무비빔밥(1300) 순대 이채 볶음(1300) 비후까스(3000)
토	돼지갈비 구이(3000)

목먹걸
축하합니다

△아·총 풍물매 마당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하 무지 무지 축하드리고 우리 마당 마니마니 사랑해 이해해 주세요. △한수야 생일 축하해 -생자대 학생회 일꾼 일동 △98사회과학 계열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하 축하합니다. △광교학과 광고동아리 NEO'AD의 98년 회지 발간하 축하드립니다. △사회과학 계열 97학년 권인영, 임기영 생일을 축하한다. -금주회 △영감야 생일 축하한다. -황이리 △김인목씨 생일 축하한다. -양동이 △어느새 한내기가 되어버린 지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헤디미 일동

알립니다

△푸른누리에서 씩씩한 98학년 새내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문열고 들어오세요. -MMP

△아간강과 학술동아리 여명여 M130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98학년 새내기 여러분 반가워요. △경영학부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98새내기 중심으로 과 학생회 강화하자! -14대 아·총 △혜진이 나 복학했어, 보고 싶구나 안녕 -JI △우리 중문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님들 정말 사랑하구요. 정말 멋진 중문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뽕글이가 △멋진 경찰행정 오빠들 시험 잘 보세요. -이쁜 97 △관심화한 학생회도 이제 각성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선거준비만 열심히시군요. △진화야, 얼골본지도 오래다. 수업 꼭 들어와라. -실 △봉사동아리 길에서 새내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미경, 대철, 철주 모두 사랑합니다. 형들도요. -마니마니 △정선이야, fighting!!!

'동약광장'과 '소나기'라는 고정칼럼에서 대학생 및 신입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학내 곳곳대자보를 붙이고, 금요일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청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관 1층, 도서관 3층 휴게실, 명진관 2층, 혜화관 2층 휴게실, 동국관 식당 -함부로 대자보를 떼지 마세요.

은방급
축하합니다

△98 법정학부 윤인옥 동생이 입학하 -97 고미사 동 △98학번 새내기를 환영합니다. -토털 노친네 일동 △휘철야! 입학하 축하한다. 법대로 살고 그냥 열심히 하는거지 뭐. △3월 12일은 풍이랑 경의의 1주년 기념일!
△3월 6일은 윤경이 귀 빠진날 △우철제(조경 92)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속도 위반은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인데) △신입생 여러분! 입학하 축하합니다. -후우회장 손순현 △98 신입생 여러분 간호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은 나이팅게일들 입학 축하한다. 파이팅-연니아 △가정교육과 개강·입학하 축하합니다. -06 가교인 △소영아, 태호선배 축하해요 △97 학번 외국어문학부 강 주영양의 스물 한 번째 생일이 3월 10일 아예요! 주영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좋은 사람 꼭 만나길 바래 -어느 9801

△98 학번 새내기 여러분! 문화토론 동아리 '밀담' 환영 외박요. -97학번 한내기가 △98 학번 신입생 여러분 대학 생활을 따뜻한 차와 함께 하시지 않으렵니까! 따뜻한 사람이 모이는 곳 다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2층 19기H △토람이여 영원하라 -토람일동 △연화 1동 428호 이쁜언니 방문로 들어온 지현이 생일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재미있게 잘지내자

열심히 하시다

△강훈이 형 열심히 공부하세요! 멋진 후배가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되어 드릴게요 -곰 △동목회 19기 임원단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S △정보통신 공학부 신입생 여러분 열심히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콩비지찌개(3000) 찜정식(3000) 생선까스(1300) 돈육 김치찌개(1300)
화	냉이 된장국(2800) 돈까스(3200) 참치 우거죽(1300)콩나물볶음밥(1300)
수	소고기 국밥(3000) 덕덕구이(3200) 불고기 비빔밥(1300) 순두부찌개(1200)
목	김치 전골(2800) 한치회 달걀(3200) 시골국국(1300) 떡볶이 백반(1300)
금	도토리탕(4300) 옥돌구이(3000) 돈육계첩볶음(1300) 민두국 백반(1200)